

섬 음식 가치와 문화 한 권에 담다

신안군, '섬음식 백서' 발간 권역별 음식 종류·생산 시기 효능·조리법 등 집대성

신안군이 섬마다 독특한 식재료와 수많은 섬 음식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보존, 계승하고자 섬 음식 백서를 발간했다.

신안군은 잊혀져 가는 섬 음식을 발굴하고 표준 조리법을 집대성한 '신안군 섬음식 백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섬 음식이야말로 섬 마다의 풍토와 전통, 그리고 생활의 지혜로 빚어진 신안의 고유문화지만 식생활의 변화, 가공식품과 수입농산물의 범람,



비했다.

백서는 권역별 대표 음식 재료의 종류와 생산 시기, 섬 음식 종류(340선), 섬 음식의 식재료별 역사적 고찰과 효능, 조리법 등을 세세하게 담았다.

연도교의 건설, 특히 섬 주민들의 노령화로 섬 음식의 고유한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군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섬 음식 기능을 보유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며 백서를 준비

군은 백서가 신안군의 관광산업과 식품산업에 중요한 도우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섬 음식과 관련된 산업화의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신안군의 미식관광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산으로, 섬 음식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 섬 음식 백서는 일반책자와 전자책 형태로도 발간된다.

전자책은 지난 1일부터, 일반책자는 오는 15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 섬 음식 백서 발간으로 섬 음식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신안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리는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시, 코로나 방지 민원접견실 운영

본청 중앙 현관 폐쇄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도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민원접견실을 운영하는 등 청사 방역을 강화한다.

목포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비상상황 종료시까지 시청 민원봉사실에 민원접견실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봉사실에는 국별로 탐장이 배치된다. 민원인 단독으로는 청사 이동이 금지되므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업무 담당자가 접견실로 찾아가 응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청 중앙 현관을 증식 시간(오전 11시 45분~오후 1시)을 제외한 오전 9~11시 45분, 오후 1~6시까지 폐쇄한다.

시는 방역 상황에 엄중함에 따라 주기적인 사무실 환기,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이상증상이 발현한 공직자는 출근하지 않고 진단검사부터 실시하도록 조치



했다.

또 사적모임·회식 금지, 퇴근 후 바로 귀가하기 등 공직기강 확립도 강도높게 이어나갈 계획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진도군, 1191억 들여 재해위험 하천 정비

진도천·군내천·향동천 등 경관 디자인 재가설 추진도

진도군이 올해 1191억원을 들여 재해 위험 하천 정비 사업을 펼친다.

진도군은 침수 피해 우려 지역 해소를 위해 진도천, 군내천, 향동천, 청용천 등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재해 취약지의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또 진도천의 남천 1교와 남천 2교를 경관 디자인으로 재가설을 추진한다.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 실시설계와 설계 검토, 보상, 민원 등 사업별 지연이 발생하지 않게 수시 점검 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진도읍 하수도 집중관리지역 정비 사업으로 우수지와 빗물 펌프장을 설치해 침수 예방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계, 공사 등을 조기 추진해 사업비가 신속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동진(가운데) 진도군수가 지역 재해 취약시설을 방문해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진도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재해위험지구의 적극적인 발굴과 중앙정부로부터 국·도비 확보에 매진

하는 등 진도군민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설맛이 '기찬들 영암몰' 반값 할인행사

영암매력한우·고구마 등 대표 농특산물 24일까지



영암군은 공식 온라인 쇼핑몰 기찬들 영암몰에서 '놀라운 설명전 기획전'을 연다고 6일 밝혔다.

기획전은 오는 24일까지 진행하며 설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암매력한우, 고구마, 유기농 쌀 등 영암군 대표 농특산물로 구성됐다.

기찬들 영암몰 모든 제품 30%와 신규고객 추가 할인 쿠폰 10%, 매일 1회 출석체크 할인쿠폰 10%를 더해 50% 할인했다.

친구추천이벤트를 실시해 추천한 친구에게

5000원, 추천받은 친구 5000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4월 오픈한 영암몰은 판매하는 농가 및 소상공인은 최저 수수료만 지불하고 전국의 소비자들 영암군의 대표 농특산물을 온라인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쉽게 직거래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영암몰에서 맛과 품질이 우수한 농특산물을 특별히 엄선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천 기자 jbh@kwangju.co.kr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11일~다음달 10일까지

무안군이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농촌,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의 역할을 해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신청년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해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사업대상자 확정일(시군 공익수당 위원회 개최일)까지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처분받은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원이다. 무안사랑상품권 또는 무안사랑카드도 지급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공익수당 지급이 농어민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해남상품권 새해맞이 10% 할인판매 합니다

감사 이벤트도...행안부 우수상

해남군이 새해를 맞아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구매한도는 지류와 카드를 합쳐 총 70만원이며, 구매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1월 한 달간 해남사랑상품권을 50만원 이상 구매하면 자동 응모된다.

당첨인원은 200명(지류상품권100명, 카드상품권 100명)으로 2월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한다. 당첨결과는 군

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문자 후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해남사랑상품권은 첫째 170억원에서 2020년에 1250억원으로 급성장, 2021년에는 1750억원까지 발행 액수가 증가했다.

군 단위 최대 발행·판매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행안부 주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비대면 결제 확산에 따라 지난해에는 앱 충전식

체크카드 방식을 도입했으며, 올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부플랫폼' 도입과 카드상품권에 기준액 또는 월정기일에 자동 충전되는 기능을 추가 계획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올해는 상품권에 대한 국민 지원이 크게 감소했지만 힘든 시기에 있는 소상공인 및 군민들을 위해 다양한 활성화 전략을 펼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해남사랑상품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